게르주오

2021. 4. 4.(나해) 제2262호

주님 부활 대축일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놀라지 마라.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마르 16,6)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주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온갖 수난과 모욕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뜻을 따르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러한 주님 부활 사건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 삶의 희망입니다. 죄와 죽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 태어나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로서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로 눈을 돌려보면, 아직도 세상은 암울합니다. 우리나라만의 사정은 아니지만, 코로나19 상황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상황은 더디기만 합니다. 확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서민들의 삶은 힘겹기만 합니다. 경제상황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요양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은 가족과의 만남도 어려워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다 세상을 떠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혐오와 증오 범죄가 세상에 만연하고, 권력자와 가진 자들의 비리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더해줍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은 군부의 잔혹한 진압으로 짓밟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군경의 총탄에 쓰러지고 희생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국제 사회는 성명만 발표할 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 전 제8대 교구장이셨던 이문희 바울로 대주교님을 하느님 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오랜 세월 우리 교구를 위해 일하셨고,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계실 것 같았던 대주교님께서는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는 주일 새벽에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모든 것을 우리로부터 단절시킵니다. 죽음의 힘은 너무나 큽니다.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우리는 세상에서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그의 모습을 볼 수 없고, 그와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내가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의미를 잃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기약 없는 이별을 해야 합니다. 이렇듯 죽음은 세상 모든 것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죽음의 세력이 세상을 장악한 듯이 보입니다.

내 곁에 있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크나큰 상실감을 안겨주며, 또한 그 죽음이 언제 나의 삶을 앗아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았습니다.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서민들의 삶은 암울하지만,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마치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여린 새싹들처럼, 죽은 듯이 보이던 고목의 나뭇가지에서 피어나는 어린 꽃잎들처럼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으로부터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수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은 마치 승리하여, 예수님과 이 세상을 영원히 갈라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 뜻을 따르려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 부활 사건은 예수님에게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이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로마 6,9)

우리 교구 공동체는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장기 사목 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목교서를 통해 강조했듯이, 올해는 '하느님 말씀을 따라'라는 주제로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힘과 희망을 얻어 기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나의 이기심과 아집, 욕망을 버리고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제대로 싹을 틔워 꽃 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지금 여기서부터 부활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부활의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2021년 4월 4일 주님 부활 대축일에,

천주교 대구대교구장 ㅅ로 빨가 타대오 대주교

예수님 부활에 관한 성경말씀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신앙 진리의 정수이다.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를 중심 진리로 믿고 실천했으며, 성전(聖傳)이 근본 진리로 전승하였고, 신약 성경의 기록으로 확립되어 십자가와 함께 파스카 신비의 핵심 부분으로 가르쳐온 신앙 진리이다.(『가톨릭교회교리서』 638항)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거였고 교회의 탄생과 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의 대부분 하느님 나라에 관한 내용이고, 그 가운데 부활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라자로를 살리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25-26)**라고 하신 말씀이 가장 기본적인 말씀입니다. 성경 안에 나타난 부활과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흗날에 되살아날 것이다."(마태 17,22-23)라며 부활을 예고하셨고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요한 10,17)**라고 하시며 다시 살아나실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루카 24,39)**라고 하시며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알리셨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은 부활에 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메시지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확실한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의 증거에 관한 구절들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1베드 1,3)**

"그분께서 당신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사도 17,31)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되살아나셨습니다."(로마 4,25)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로마 8,11)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1코린 15,17)

한국 순교복자 124위 약전

경기도 여주에서 태어난 정순매(鄭順每) 바르바라는 열여덟 살 되던 1795년에 오빠 부부로부터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그의 오빠는 주문모 야고보 신부를 도와 교회 일에 참여한 정광수 바르나바였고, 올케는 유명한 교우 집안 출신인 윤운혜 루치아로, 모두 1801년에 순교하였다.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자마자 바르바라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였다. 또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기 위해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한 뒤, 주변 사람들에게는 '허가와 혼인하였다가 과부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과부로 행세하였다.

바르바라는 이후 서울로 올라가 생활하면서 오빠 부부를 도와 교회 서적과 성물을 신자들에게 보급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윤점혜 아가타가 회장으로 있던 동정녀 공동체의 일원으로도 활동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서 공소를 치를 때면 언제나 정성을 다해 모든 것을 준비하였다. 그러던 중 1800년에 주문모 신부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후로는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한 일을 하는 데 정성을 다하였다.

1801년 신유박해 때 체포된 정순매 바르바라는 문초와 형벌 가운데서도 아주 뛰어난 용덕을 보여 주었다. 그녀는 한 사람의 교우도 밀고하지 않았으며, '비록 죽음을 당할지라도 신앙을 버릴 수 없다'고 하면서 여러 차례 신앙을 증거하였다. 그러므로 관장은 그녀에게 혹독한 형벌을 가하도록 하였지만, 자신이 원하던 것을 전혀 얻어낼 수가 없었다.

정순매 바르바라
(1777 ~ 1801년)

마침내 바르바라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사형 판결을 받았다. 동시에 '고향으로 보내 처형함으로써 그곳 백성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하라'는 명령에 따라 여주로 이송되었다. 그런 다음 1801년 7월 3일(음력 5월 23일)이나 4일에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으니, 당시 그녀의 나이는 24세로 동정녀였다.

바르바라가 사형 판결을 받기 전에 말한 최후 진술은 다음과 같다.

"포도청에서 모진 형벌을 받고 형조에서 엄한 문초를 당하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저는 천주교 신앙을 너무나 좋아하여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파스카 성야

▲ **제1독서** [창세 1,1-2,2]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 **화답송**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제2독서** [창세 22,1-18]
〈우리 성조 아브라함의 제사〉

▲ **화답송**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 **제3독서** [탈출 14,15-15,1ㄱ]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땅을 걸어 들어갔다.〉

▲ **화답송**
◎ 주님을 찬양하세, 그지없이 높으신 분.

▲ **제4독서** [이사 54,5-14]
〈네 구원자이신 주님께서는 영원한 자애로 너를 가엾이 여기신다.〉

▲ **화답송**
◎ 주님, 저를 구하셨으니, 당신을 높이 기리나이다.

▲ **제5독서** [이사 55,1-11]
〈나에게 오너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라.〉

▲ **화답송**
◎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으리라.

▲ **제6독서** [바룩 3,9-15.32-4,4]
〈주님의 불빛을 향하여 나아가라.〉

▲ **화답송**
◎ 주님,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제7독서** [에제 36,16-17ㄱ.18-28]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 **화답송**
◎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 **서간** [로마 6,3-11]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 **복음** [마르 16,1-7]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자렛 사람 예수님께서 되살아나셨다.〉

▲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주님 부활 대축일

▲ **입당송**
저는 다시 살아나, 여전히 당신 안에 있나이다. 알렐루야.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어 주셨나이다. 알렐루야. 당신 지혜는 놀라운 일 이루셨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 **제1독서** [사도 10,34ㄱ.37ㄴ-43]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 **화답송**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제2독서** [콜로 3,1-4]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복음** [요한 20,1-9]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 **영성체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4월 5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4월 5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4월 5일(월) 11:00 계산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4월 10일(토) 10:00 월성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4월 5일(월) 11:00 죽도성당	–	–

성소 | 피정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성소 모임

일시: 매월 둘째주 토 15:00~일 13:00
장소: 성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 본원 (경북 왜관) / 문의: (010)8353-2323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 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가르멜수도회 성소 모임

상담: 매월 지역별 장소 지정
문의: (010)2140-7414

살레시오회 성소 상담

대상: 고3~일반 35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심재현 신부, (010)2042-8353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개별 상담 및 만남

대상: 국·내외 선교와 봉사에 관심 있는 39세 이하의 미혼 여성
문의: 강피아 수녀, (010)3679-7198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피정(권민자 수녀)

1박 2일: 4.24~25 / 5.8~9
3박 4일: 4.29~5.2 / 6.4~7
8박 9일: 4.8~16 / 5.17~25
장소: 문산예수마음피정의집
신청: (010)4906-5722 / (031)953-6932

제주면형의집 피정

수도회 수사와 제주성지·평화·역사 순례, 미사, 나눔, 올레길·오름트레킹
일시: 4.11~14(추자도) / 4.16~18 4.21~24(추자도) / 4.26~28 / 5.1~3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교육 | 모집 | 기타

대구가톨릭대병원 사회사업후원가족 모집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환우들이 치유의 희망을 가지도록 나눔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후원: 대구은행 505-10-218514-9
문의: 650-3529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전인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670-5959

박성규 엘리지오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www.theopen-daegu.co.kr 관절! 춤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신축 확장 이전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 진 욱 _루카
T. 555-5520 죽전역 4번 출구

복현연합내과 BOKHYUN UNION INTERNAL MEDICINE
건강보험공단 검진(5대암)
위·대장 내시경·용종절제
고혈압·당뇨관리 우수 의료기관 선정
전문의·의학박사 | 최희만(레오), 이서우(D.안드레아)
복현오거리 신한은행 옆 건물 2·5층 T. 053 943 9380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YOOLIM EXPRESS
허 만 철(바오로)
하 종 순(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

WHISEN 시스템에어컨
영화공조시스템
시스템에어컨 판매 및 설치
아파트(입주, 이사, 거주 가능)
전원주택, 상가 천장형에어컨
010-8857-6781 johnksk@hanmail.net
대표 김 광 수(세례자요한)

Since 1963
가톨릭피부과의원
Catholic Dermatology Clinic
58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 신축건물 이전 및 레이저 전문 진료과장 초빙 |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053) 320-2000

그랜드 통증의학과
(비수술적인 통증 치료 전문)
허리, 어깨, 무릎 관절통, 스포츠 통증
프롤로 재생 주사, 도수 치료
통증의학전문의·원장 정 순 우 (요셉)
범어네거리 두산위브더제니스상가 3층
☎ 755-5572 (지하철 범어역 8번 출구)

잘보는 안과
DAEGU PREMIER EYE CENTER
문홍재(요한) · 이정호 · 구원모
이태윤(미카엘) · 김진선 · 구병영
효성병원 맞은편 1~4층
잘보는안과 빌딩
☎ 053 766 4455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서정길(요한) 대주교
  1987년 4월 7일
- 이윤걸(토마스) 신부
  2000년 4월 9일
- 신순균(바오로) 신부
  1948년 4월 10일

교육 | 모집

제32기 대구가톨릭대 차이나포럼 원우 모집
개강: 4.12(월) 19:00
장소: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내용: 명사특강, MT, 졸업여행 등
수업료: 120만원(6개월 과정)
문의: 원장 김영택, (010)9494-8169

부부 둘만의 힐링여행 대구ME 주말
386차: 5.14(금)~16(일)
장소: 한티피정의집 / 문의: 983-0521
풍요로운 혼인생활을 위한 부부프로그램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영어
문의: 593-1273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사군자문인화, 연필초상화, 제대꽃꽂이, 캘리그라피, 서양화, 일반꽃꽂이, 플룻, 발성법, 우쿨렐레, 섬유공예, 피아노, 정리수납전문가과정 / 신청: 254-6115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자원봉사자 모집
분야: 진료안내, 공급실, 기타
대상: 만 65세 이하 건강한 남·녀 (비신자 포함)
담당: 류요한 신부
문의: 650-4442 / (010)6565-6672

수지에니어그램 모집
자기 이해와 잠재력 개발, 리더십 향상
가족수지, 커플수지, 소그룹 피정
일시: 매월 둘째주 토 10:00~17:00
문의: 남대영기념관, (010)8682-4237

바오로딸 벙커감상실
벙커 속 영화 감상실
일시: 4.7(수) 18:00
장소: 바오로딸 세실리아홀
대상: 청년 누구나
문의: 김베로니카 수녀, (010)2507-1610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4.11(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서울) / 비대면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24~40세
문의: 노혜인 선교사, (010)3817-0567

돈보스코직업전문학교 학생 모집
일시: 4~12월(3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기숙사무료, 수당지급
최근 5년 평균 취업률 89.2%
대상: 15세 이상 / 문의: (02)828-3600

성모애덕의집 입소어르신 모집(양로원)
위치: 경북 칠곡군 동명면 남원로 487
내용: 1인 1실, 미사, 수녀원 운영
대상: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
문의: (054)972-6219 / (010)8388-6219

대구가톨릭요양원 입소어르신 모집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6-2141 / 615-2141

채용 | 안내

가톨릭피부과의원 진료 안내
58년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진료분야: 습진, 무좀, 아토피, 건선, 여드름, 탈모, 알러지, 레이저 시술 등
문의: 320-2000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문정선, 이승은(글라라)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교구청 휴무
교구청은 4월 5일(월) 쉽니다.

일월매트총판 | 온수매트
한일의료기 | 게르마늄매트
소금좌욕기 | 전자제품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통단지로 45 전자관 1층 239호

리스토리결혼정보
결혼 칼럼 연재중 | 리스토리TV 유튜브 진행
안동 MBC, 아시아뉴스통신 방송 다수출연
23년 전통 ♥ 성혼시까지 맞선
대표 이현숙 수산나 (교육학 박사)
M. 010.6571.3385
T. 053.586.3220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발·발목·스포츠 질환)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053-255-8119
3호선 범물역 2번출구 (농협방향 100m)

WIDEX 달서점
와이덱스 보청기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청능사/사회복지사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라식, 백내장수술 병원
김기산안과
KIM KI SAN EYE CENTER
의학박사/전문의 김 기 산(안드레아)
(전 동산의료원 안과과장)
봉산문화거리 입구 미래에셋증권대구 9층
☎(053)257-8875
www.kisaneye.co.kr

개원 36년
달성피부과
DALSUNG
피부과 전문의 · 성형외과 전문의
아토피·만성피부·여드름
눈밑 지방·피지낭종
손재경(다미아노) · 김인주(레지나) · 서우태(루카)
053)566-4333, 2호선 두류역 3번출구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흡(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윤외과 성형외과
서울대학교 병원 협력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원장 윤용현 바오로
수성구 어린이회관 맞은 편(3호선 어린이회관역)
T. 053)766-2454 / 2455